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5. 15.(수) 11:00 < 5.16.(목) 조간 > 배포 2024. 5. 15.(수)

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참석 계기, 대미(對美) 투자기업 현장 애로 점검

- APEC 통상각료회의(5.17.금-5.18.토 / 페루 아레키파) 참석 계기, 자동차 등 대미(對美) 투자 기업 애로 점검 및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 점검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통상장관회의* 참석(5.17~18) 계기 미국 애틀란타 지역을 방문(5.14.화~5.15.수)하여 대미 진출 기업들의 애로 및 한미 첨단산업 공동 연구개발(R&D)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미 통상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통상장관 간 역내 통상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정례 개최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.15.(수)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하여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과 만나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 업계는 정부의 노력으로 타 국가 대비 낮은 예비 관세율이 나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, 정 본부장은 “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관련 미 상무부의 합리적 예비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,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미(對美) 협의 등을 추진했다”고 언급하고 “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정 본부장은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(KOCAS) 회원 7개사*와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경영 환경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하였다.

* 포스코, 한화큐셀, 엔켐, LS 전선, HD일렉트릭, 앱솔릭스, 포스코인터 등

한편, 정인교 본부장은 5.14.(화)에는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방문하여 한-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하였다. 정 본부장은 조지아텍 소속 한인 교수 및 연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, “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북미 생산 거점이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조지아텍이 한미 첨단산업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”고 강조했다.

* 산업부는 "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" 사업 추진중('24년 575억원)이며 금년 총 6개 기관(美 **조지아텍**, MIT, 예일, 존스홉킨스, 퍼듀, 獨 프라운호퍼)을 우선 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

미국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5.16~18일 APEC 여성·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아태지역 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하고, 2025년 우리나라의 APEC 수임국 준비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2024 페루 APEC 주제 : 자율(Empower), 포용(Include), 성장(Grow)

담당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	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권태성	(044-203-5657)
	다자통상법무국 다자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김파라	(044-203-5930)
		담당자	사무관	최민지	(044-203-5939)
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	책임자	과 장	박용민	(044-203-4530)
		담당자	사무관	지미란	(044-203-453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